

# “데이터 경제 시대… 중앙-지방정부간 벽 허물어야”

### 국회 데이터혁신·활성화 토론회

국민의 공공서비스 알권리 충족  
지방분권 통한 데이터 공유 제시  
예산 한계, 정부 재정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 주관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공공데이터의 혁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구서윤 기자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 주관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공공데이터의 혁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현재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쓸모 있는 데이터로 쓰이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지고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보 간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와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등은 관

련 법률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던 중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을 중국으로 파악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서 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윤종인 책임연구

원은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해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데이터 공동이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주체가 돼 모든 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선 엔코아 김옥기 상무가 “공공데이터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막상 지역의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자체가 많지 않다”며 “이런 구조를 도입하려면 지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용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점검된 문제들을 과방위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데이터 경제시대,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 방향’에 관한 기초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옥준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과 데이터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윤종인 책임연구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지털융합과장, 김옥기 엔코아 상무, 도해용 레드데이 대표, 명성준 경상대학교 교수, 이현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황병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미래에셋생명, 소아암 어린이에 항균키트 1000개 전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6일 여의도 본사에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1000개를 제작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맨 앞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변재상 사장(맨 앞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6일 등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를 제작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요건 완화

### ‘전세임대 II’ 1900가구 공급 14~29일 신청… 지원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7일 시작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 I)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 완화 지원한도액 상향 등 신혼부

부 지원방안으로 이번에 첫 도입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4)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가구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 ‘30% 이상 절약’ 할인교통카드 전국 보급

###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선불 방식 후불로 변경… 편의성 ↑

대중 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선불카드 방식을 후불카드 방식으로 바꾸고, 전국 어디서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알뜰교통카드 2.0’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정기권 카드가 교통비 정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보행·자전거로 쌓은 마일리지를 통해 최대 20%까지 추가로 할인해줘 최고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에서 체험단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 불편 사항을 분석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업그레이드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광역버스 등 더 비싼 요금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이제는 환승 시에도 한 장의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번거로운 충전 방식이나 선불 부담도 없어진다. 이전에는 지정 충전소를 찾아가 직접 월 5만 5000원 수준의 선불보증금을 먼저 내야 했다. 정기권 특성상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소멸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한 후불교통카드 방식으로 바꾸고, 스마트폰 앱을 작동하면 교통카드 없이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단계마다 인증 버튼을 눌러야 했던 방식도 개선됐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준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지난해 日 평균 카드사용액 2.4조… 소액결제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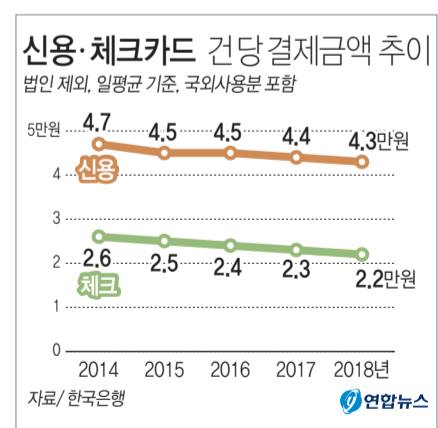
### 신용카드 1.4조·체크카드 5020억 결제 건수는 각각 10.5%·10.9% ↑ 소액결제 증가로 건당 결제액 줄어

지난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결제액은 하루 평균 2조 4000억원에 달했다. 세계해택,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조 9000억원, 2016년 2조 1000억원, 2017년 2조 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하루 평균 1조 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의 결제액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1조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18.4%), 가구·가전제품(10.8%), 공과금·전문서비스(10.1%), 연료판매(9.5%)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2.9% 감소한 4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계해택과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난 5020억원이었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17년 20.9%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 3111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 1억 506만장보다 많았다. 다만 발급장수 차이는 2017

년 2773만장에서 2018년 2605만장으로 소폭 줄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각각 3575만건, 2232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5%, 10.9%씩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 3089원, 체크카드가 2만 247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3.0% 감소했다. 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8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하루 평균 58조 8000억원으로 8.9%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모바일 지급채널 이용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341만명으로 전년 동기(8766만명) 대비 18.0% 늘었다. /김희주 기자 hj89@